

4명 숨진 2006년 완도 유흥주점 화재

“소방행정 잘못 전남도 배상”

광주지법 판결

소방과출소에 최소한의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소방대원 교육 등 소방관리를 허술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면 해당 자치단체가 화재 피해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9일 김도(29) 등 8명이 전남도와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00만~1억5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지난 2006년 7월 29일 오후 11시10분경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D유흥주점 6호실에서 흡연으로 인한 불이 나 이 방에 있던 손님 8명 가운데 김도(당시 59세)씨 등 4명이 숨지고, 또 다른 4명이 다쳐 전남도와 유흥주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화재 당시 완도파출소 대원 7명과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인명구조요원이 없어 화재진압에만 치중했고, 인명구조 활동은 현장에서 55km 떨어진 해남소방서 소속 인명구조요원 6명이 도착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 소방파출소에는 최소한 1명의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하든지, 화재진압 요원을 상대로 인명구조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하는 데도 완도파출소에는 구조요원도 없었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발생 당시 파출소장의 비번으로 대원들을 대신 지휘해야 할 부소장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효율적으로 지휘하지 못한 점 ▲소방대원들이 연기투시 랜턴 등 장비를 갖추고도 화재진압에만 치중, 인명구조를 하지 못한 점 등을 배상 책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소방파출소에 최소한의 인명구조 요원을 배치하거나 소방

대원들에 대한 인명구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확인시킨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또 주점 업주에 대해서도 “최초 발화지점인 주점 내 6호실을 하지 않고 전원을 켜고,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초기진압, 손담배피 등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사망자들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화재를 보다 빨리 감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 임용추천위 1차회의 총장 선거 직·간선 첫 혼용

오는 8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전남대학교 18대 총장 선거전의 서막이 울렸다.

전남대 관계자는 29일 “총장 선거 일정을 결정하게 될 임용추천위원회 1차회의가 오늘 개최됐다”며 “구성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일정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몇 차례의 회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남대 총장선거는 직·간접 선거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우선 교수 120명, 교직원 12명으로 구성된 132명의 총장후보선정위원회가 다음달 18일에서 4월 18일 사이에 총장 후보 4명을 결정한다.

이들 4명을 대상으로 교수 1천100

여명과 교직원 110여명이 참여하는 직접선거가 진행된다. 선거는 빠르면 4월 25일에서 늦어도 6월 18일 사이에는 치러진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총장 후보는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주 전남대 평의원회 부의장은 “2월 말에 선관위와 협약서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간접 선거, 선관위 위탁 등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들이 많아 문제없이 치러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청소년박람회 광주추진위 창립총회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광주추진위원회'가 29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는 정·관계, 학계, 청소년단체 인사 42명으로 구성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학원 수강 시간 제한’ 골머리

시의회, 조례 개정안 심의 다음 회기로 미뤄

광주시의원들이 초·중·고교생의 학원교습 시간을 놓고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30일 교육사회위원회 열고 시교육청이 발의한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조례안의 골자는 학원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밤 12시 이후 학원 심야 수업이 제한되고 이 규정을 어기는 학원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208명·29.7%), 고등학생(228명·29.4%), 교사(39명·24.1%) 등이 학원 수업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우선 시민단체 등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을 들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간담회를 갖고 밤 10시 제한 의견을 시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밤 10시 제한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너무 짧은 지적도 많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학원 수강권과 학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락가락 날씨 1월 30일

구름 많고 한때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주	구름 많음	-2~2℃
포항	구름 많음	-1~2℃
수원	구름 조금	-1~3℃
대전	구름 많음	-1~2℃
대구	구름 많음	-4~2℃
부산	구름 많음	-2~2℃
인천	구름 많음	-3~3℃
서울	구름 많음	-1~2℃
경기	구름 많음	-3~4℃
충청	구름 많음	-5~2℃
전남	구름 많고 눈/비	-4~1℃
전북	구름 많고 눈/비	-1~3℃
경남	구름 많고 눈/비	-4~2℃
제주	구름 많음	-6~2℃
울릉도	구름 많음	-4~2℃
독도	구름 많음	1~2℃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동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만남도=서~북서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7:10 썰물 < 12:15
목포 밀물 > 18:53 썰물 > 01:41
여수 밀물 < 01:41 썰물 < 07:40
13:29 썰물 < 19:52

▲해돋이 07:34 ▲해질 17:58 ▲달돋이 00:46 ▲달질 11:1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1(목)	1(금)	2(토)	3(일)	4(월)	5(화)
날씨						
최저/최고	-3/4	-3/5	-1/4	0/5	-2/4	-3/5

대학내 음주 폭행·기물 파괴 심각

대학교 내에서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과 기물 파괴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제대 음주연구소 김광기 소장은 29일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학생 음주폭행 예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음주연구소가 전남대, 조선대 등 국내 77개 대학교의 학생관련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들의 음주폭행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학교가 59개고, 사고건수는 35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폭행사고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란 96건, 기물파

괴 68건, 교통사고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들 대학 가운데 43.8%는 축제나 오리엔테이션·체육대회·MT 등의 행사 때 주류회사의 지원을 받았으며, 41%는 학교 행사를 위한 출판물에 주류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음주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 73.5%는 ‘음주폭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예방방법으로는 음주 예방 교육프로그램·학교 조직지원 대책(교직원 강화)·학교와 지역사회 공동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소혹산도 매미나방 해외 반출 엄금

생물자원 320종 신규 지정

환경부는 부안군대, 매미나방 등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20종을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01년 이후 작년까지 모두 528종의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지정했으며 올해는 기존에 지정했던 생물종 수의 절반이 넘는 320종을 대거 신규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생물종에는 가는잎향유·주걱덩굴나무·물여뀌·세복수초·병아리풀 등 식물류 100종, 매미

나방·꼬리명주나비·진도멋쟁이딱정벌레 등 곤충류 180종, 부안종개산천어·모래무지 등 어류 40종이 포함됐다.

신안 소혹산도에 분포하는 매미나방은 국내에만 분포하는 고유 생물자원인 점이 감안돼 대상 생물종에 포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식물의 경우 가는잎향유는 희귀한 원예식물로 보전 가치가 높으며 주걱덩굴나무는 해외에서 이미 원예식물로 개발되는 등 경제성이 큰 점이 감안됐다.

/연합뉴스

영광 법성포 **술비** 구정맞이 직송판매

정말맛있는 술비와 특별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영광 법성포 술비입니다. 구정맞이 직송판매로 고객들에게 최고의 맛과 향을 선사합니다.

 ₩ 250,000	 ₩ 150,000	 ₩ 180,000
 ₩ 80,000	 ₩ 70,000	 ₩ 50,000

법성을상술비 061)356-7600

전남 영광군 법성포 법성을상술비 061)356-7600